

울산지역 누정의 공간구성과 형태특성 분석

Analysis for Form and Space Composition of Traditional Pavilion in Ulsan Province

이재현*, 이창업**

울산과학기술대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울산과학기술대 공간디자인학부**

Jae-Hyun Lee(jhlee@uc.ac.kr)*, Chang-Eob Lee(100watt@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울산지역 누정(樓亭)의 특성을 현장·문헌조사 통해 고찰하였으며, 목적은 울산지역 누정의 규모·형태·입면·구조 등을 분석하여 형태특성을 규명하여 누정의 콘텐츠화에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울산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일변도를 걷다가 최근 생태와 문화에 관련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특히 영남의 3대루 중의 하나였던 태화루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언양읍성의 영화루 복원 등 누정에 대한 콘텐츠 개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울산의 누정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여, 기초자료 확보 및 울산 누정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번의 연구가 있었고, 그 조사결과 울산의 누정은 경주지역의 정면3칸·후면부진입형·강변입지형 누정과 유사함을 찾아내었다. 이는 울산이 고대로부터 경주문화권에 속해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누정이 인접지역간 콘텐츠 융합의 좋은 대상이라는 점을 찾아낸 것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중심어 : | 누정(樓亭) | 입지 | 평면구성 | 입면구성 | 세부구조 |

Abstract

Pavilion(樓亭) was a Building for rest and scene appreciation in chosun dynasty.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construction method and the structure of Pavilion. The detail objectives of the research was ;

First, the location of Pavilion and the layout of facilities were analyzed and composition principle was found. Second, Pavilion were analyzed about dimension, form, constructive method, and structure.

Pavilion location was selected on the consideration of natural condition such as configuration of the ground, climate, and scene state. The Length of Building remained until present was about 8~12m, the depth was about average 3~4m. The results of these study can give deep understand of physical structure and help to reconstruct future Pavilion.

■ keyword : | Pavilion | Location | Space Composition | Elevation Composition | Constructive Techniques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영위하

며 그 안에서 개인의 정신을 수양하고 인격을 함양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상류문화나 서민문화 모두가 자연에 그 바탕을 두고 있음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늘 자연과 함께 하려했던 이 같은 생활양식과 철학은 자연

* 본 연구는 울산과학기술대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110901-006

접수일자 : 2011년 09월 01일

심사완료일 : 2011년 10월 14일

교신저자 : 이재현, e-mail : jhlee@uc.ac.kr

스럽게 누정(樓亭)의 발달을 가져왔다.

여러 시대를 거치며 풍광이 수려한 산과 계곡, 강변에는 수많은 누정이 조영(造營)되었으며 이 중 다수는 오늘날까지 남아서 우리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시 말해 누정은 선조들의 전통문화를 이해시키고 이어주는 문화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동화를 통해 휴식과 정서적 안정을 얻으려는 현대인에게도 수준 높은 여가문화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전통 누정이 한민족과 한반도를 배경으로 형성된 순수한 한국적 건축이자 공간이며 자연, 사회, 학문, 생활이 융화된 이상적인 조형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최근 각 지자체들은 지역의 역사성 회복이나 품격 있는 여가문화 공간 창출, 경관 감상을 위한 전망대 조성 차원에서 누정을 많이 건립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콘텐츠의 대상으로 전환시켜 관련 상품의 개발과 디자인의 중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¹⁾ 현재 울산시에서도 역사문화적 도시이미지 고양을 위해 영남의 3대 루(樓)로 불렸던 태화루(太和樓)와 조선시대 지역의 대표적인 정자였던 만회정(晩悔亭), 연양읍성의 남문이었던 영화루(映花樓) 등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울산지역에서 건립되었던 누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며²⁾ 비록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일부 지역이나 개별 정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와 관련한 이해와 지식은 단편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연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몇몇 누정을 제외하고는 멸실되었거나 급속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다.

이제 사라져가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현재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여러 누정의 올바른 복원·고증과 향후 콘텐츠화를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울산지역의 누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제반 특성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누정을 비롯한 전통건축물은 그것이 생산되는 지역의

제반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한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적 경험에 의해 산출해 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즉 누정은 조선시대 울산 지역이라는 사회환경과 체제 속에서 창출되었고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장인들의 손에 의해 당시의 보편적 건축형태와 구조기술로 조영된 것이다. 그 결과 전통건축물은 그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형태를 갖게 되며 강한 유형적 동질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존하거나 사진 등으로 전하는 울산지역의 누정에 대하여 그 특성을 현장조사와 문헌사료를 통해 고찰한 것이다. 연구 목적은 울산 지역 누정의 평면구성과 규모 및 형태, 입면구성, 세부구조 등을 분석하여 보편적인 형태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있다. 무엇보다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향후 누정 복원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연구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조선시대이며 공간적 범위는 울산지역이다. 연구의 과정은 일차적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실측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문헌은 누정과 관련된 울산의 각종 지지서(地誌書)·읍지(邑誌) 등이며, 현장조사는 현황파악을 위한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일제강점기의 사진이 있는 것을 포함한 18개소를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방법은 평면과 입면 및 세부구조로 나누어 형태를 분석하였는데, 평면은 공간구성을 살펴볼 수 있는 요소이고, 입면은 비례를 통한 선조들의 미감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세부구조는 시대적, 지역적인 건축 장인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당시 누정을 조성한 과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분석된 내용은 향후 각 부분별로 콘텐츠화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 순수 인문 분야인 어문학회에서도 누정을 콘텐츠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였는데, 신상구, "누정 건축 공간과 누정시 연구방법론 모색", *어문연구*, pp.311-336, 2008을 보면, 시와 누정을 함께 체험할 때 답사자의 흥미가 배가된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2) 소실되어 전하지 않지만, 울산의 대표적인 '태화루'가 영남의 3대루라고 하여 이에 대한 관심만 집중되었을 뿐, 여타 소실되거나 골짜기에 잔존하고 있는 정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II. 누정(樓亭)의 개념과 분류

1. 누정의 유래와 개념

정(亭) 또는 정자(亭子)는 보통 피서용, 또는 산수경관을 조망하기 위한 자연 속의 작은 건물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정자의 기원은 생산공동체시설인 모정(茅亭)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풍류·관망·휴식을 위한 건물로 보통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경주 양동의 관가정(觀稼亭), 강원도 화천군의 화음동정사(華陰洞精舍)처럼 정(亭) 또는 정사(精舍)는 주택 전체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기록으로 볼 때, 『삼국유사』의 천천정(天泉亭)이 국내 최고의 누정³⁾이지만 누정은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규보는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의 「사륜정기(四輪亭記)」에서 정자를 사방이 푹 트이고, 텅 비며, 높다랗게 만든 것⁴⁾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해 영조법식(營造法式)에 기록된 정(亭)의 개념은 사람이 머무르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정(亭)과 정(停)을 같은 개념⁵⁾으로 설명하거나 사람들이 머물러 대기하며 숙식하는 유관과 같은 개념, 혹은 민사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가 머무르는 일종의 재판소⁶⁾처럼 설명하고 있다. 또한 10리마다 정(亭)을 두며 이에는 각기 그 대표를 둔다⁷⁾고 하여 일종의 거리 제도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루(樓)는 이층집을 가리키고 있으며, 대(臺)와 사(榭)에 대해서는 방이 없는 것이 사(榭)라고 하였고, 사방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대(臺)이며 이중 나무가 있는 것이 사(榭)라고 하기도 하여 구체적인 형상을 언급하였다.

한편, 『설문해자(設文解字)』에서는 사람들이 쉬는 장소가 정(亭)이며 정(亭)에는 루(樓)가 있다고 하여 루(樓)는 정(亭)의 일종⁸⁾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

자는 한 가지 용도가 아닌 다용도의 건물들을 총괄하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대상지를 방문하여 거주자 및 촌로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정자를 재실(齋室)로 부르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자 본연의 기능이 사회변천과 동반하였고, 특히 최근 기거인이 없이 선조를 배향기능이 추가된 것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울산지역의 누정들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亭)·당(堂)·루(樓)·재(齋)·정사(精舍) 등으로 불리면서 조금씩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우에 따라 정(亭)으로 불린 한 건물의 대청 우측방을 □□재(齋), 좌측방을 □□헌(軒)으로 부르는 등 각 방의 기능도 달랐음을 알 수 있었다.

2. 울산지역의 누정 개관

본 연구대상지인 울산지역은 현재 울산광역시 행정구역 내를 말한다. 과거 울산은 신라와 가야의 변방이었으며, 고려시대에 들어 경주의 권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졌고, 익히 알려진 문인들이 관리나 귀양살이 하러 오는 경우도 더러 있어 이를 중심으로 지역의 문인들이 유풍(儒風)을 잇기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포은 정몽주와 가정 이곡, 설곡 정포 등이 남긴 발자취들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경상좌병영(慶尙左兵營)의 설치 및 울산도호부의 승격 등 더욱 독자적 성격이 강해졌으며 그에 따라 관아건축의 확대와 그에 속한 정자와 루(樓)가 건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 500년간 이 지역 출신인사가 상위직에 오른 적이 거의 없는 등 정계에서 소외되다시피 하였다. 또한 이 지역은 사림과의 본고장인 경주와 인근에 있었으나 사림의 세력이 안동권으로 옮겨가면서 정계와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을 거치며 가부장사회제가 확립되면서 기존의 지역 토성 및 이주해온 성씨들이 씨족마을을 이루었고, 그를 중심으로 가문 내 유풍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 시대를 전후하여 울산지역에는 누정건축이 다수 조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⁹⁾

3) 신라 21대 昭智王 즉위 10년(AD 488)

4) 東國李相國集, 卷23, 四輪亭記, '作豁然虛者謂之亭'

5) 釋名, 釋宮室條, '亭停也 人所亭集也'

6) 釋名, 風俗通義條, '亭留也 今語有亭留亭待蓋行旅宿食之所館也 亭亦平也'

7) 漢書, 白官 公卿表條, '十里一亭 十亭一鄉 亭有亭長'

8) 設文解字, '重屋曰樓, '無室曰榭 觀四方而高曰臺 有木曰榭', '亭民所安定也 亭有樓'

9) 임진왜란 이전의 울산관련 유문 및 고문헌에서 정자에 대한 언급은 그리 흔치 않으나, 임진왜란 이후 편찬된 학성지 및 울산읍지에는 정자의 수가 대거 등장하며 특히 흥려승람에는 60개 이상에

표 1. 연구대상 누정 일람표

구분	이름	소재지	규모	건립 년대	성격과 기능
루 (樓)	청원루*	중구 교동 171-1	5×2	1711년 중건	울산향교 문루, 원래 명칭은 작신루(作新樓)
	객시문루	중구 북정동 4	3×2	1667년 초창	울산객사 문루
	가학루	중구 북정동 349	3×2	1859 초창	울산동헌 고각루(鼓角樓)
정 (亭)	이휴정*	남구 신정동 1412-10	3×3	1662년 초창, 1940년 울산객사 문루를 현 위치로 이건	건물은 원래 문루, 이휴정 자리에 이간하면서 정자로 개축 됨, 원래 이휴정은 별서 기능
	양정재*	북구 송정동 733	6칸	1874년 초창	주택의 사랑채, 별당형 정자
	송애정사*	북구 송정동 432-1	4×1	1828년 초창 1881년 중건	밀양박씨 송정문중의 강학소로 건립
	관서정*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248	4×1.5	1700년대 초창 1959년 중건	김경의 별서, 문중 재실로 변화
	입암정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685	2×2	1796년 초창 1940년 중수	울산지역 유림들의 경승 관람용 공루(公樓), 학 성이씨 재실로 용도 변경
	백련정*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산 140-1	4×1.5	1784년 초창 2000년 이건	백련서사의 강학소
	효사정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692	3×1.5	고종조 초창 1970년대 중건	경주김씨 문중의 재실
	집청정*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8-1	3×1.5	1600년대 초창 1932년 중건	윤암 최신기의 별서
	작천정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산111-2	3×3	1902년 초창 2005년 중건	언양지역 유림들의 경승 관람용 공루
	능산정사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83	3×1.5	1800년대 초창 1971년 중수	진주강씨 문중의 강학지소
	해은정*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1119-4	3×1.5	1800년대 초창 1980년대 중수	윤두석의 독서 및 강학지소
	재천정*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 385	3×1.5	1700년대 초창	죽오 이근오의 별서 석천정을 재천정으로 개칭
	옥오정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420	3×1.5	1890년 초창	단산 김양호의 강학지소
	거경재*	울주군 청량면 통천리 620	3×1.5	1855년 초창	경주이씨 문중의 강학지소
	활천정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339	3×1.5	1800년대 초창 1987년 중수	학성이씨 활천문중의 재실

* 표시의 정자들은 평면실측한 대상임.

신분제사회, 즉 양반제도로 특징지을 수 있는 조선시대의 사회구조는 유교이념에 따른 문중이 부각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가문 및 문중별 교육시설인 서원과 서당의 건립이 활발하였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작은 단위로 누정이 건립되어 서당으로 발전하거나 별서(別墅)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표 1]은 전기한 고문헌과 기초 현장조사를 통하여 울산지역 내 현존하고 있는 정자(재실 제외) 중 원형의 변화가 심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정리하여 본 것이다. 그리고 이를 『흥려승람(興麗勝覽)』¹⁰⁾의 기록과 문중의 면담을 통해 설립목적에 따라 분류해 보면 울산의 정자는 정(亭)으로 부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재(齋), 그 다음이 당(堂), 정사(精舍) 순이었다.

달한다.

10) 흥려승람은 1937년에 울산지역 유림들이 편찬한 사관(私撰) 읍지류(邑誌類)의 종합지리서이다.

그리고 정(亭)은 개인 휴양이나 수양하기 위한 별서(別墅)의 용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실, 강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에는 상당수가 재실로 용도변경 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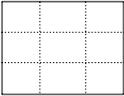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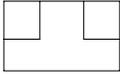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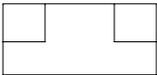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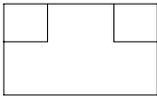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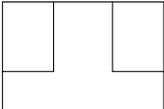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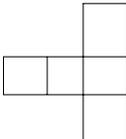
III. 울산지역 누정(樓亭)의 형태적 특성

1. 평면구성

본 조사대상 누정 중 3개소는 루(樓)이며 15개소는 정자이다. 일반적으로 정자가 자연속에서 개인적인 수양공간의 성격이 강하다면 루는 공적인 집단 수양공간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임지상 조사된 정자들 가운데 양정재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거건물과는 인접하지 않고 별도로 독립된 자연

표 2. 울산지역 누정의 평면형식

구분	성격	사례
	애초의 단순한 정자	
	칸 규모의 확장 I	임압정
	칸 규모의 확장 II	청원루, 가학루, 객사문루, 작천정
	전면 개방형	해은정, 효사정, 활천정, 집청정, 재천정, 옥오정, 능산정사, 거경재
	정면 칸의 증가 : 4칸	관서정, 백련정, 옥강정,
	겹집화	초산재, 남은재
	측면 칸 증가 : 3칸	이휴정
	丁자형 : 방향성 증가	송애정사, 양정재

경관 인접형이다.

현존하는 정자에서 나타나는 평면특성을 요약 정리 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누정의 평면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의 배열과 그로 인하여 구성되는 내부 공간이다. 누정 평면의 기둥간격 설정은 기둥의 배열과 공간의 설정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곧 상부의 지붕형태, 입면비례 등과도 직결된다.

[표 2]에서 도식화한 정자건축의 평면형식은 시대적

인 발전과정은 아니며 대지의 조건에 따라서 또는 기능적,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그 크기와 형태를 한 결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을 통해 울산지역 정자건축의 전형적인 평면형식은 다음의 몇 가지 특성으로 설명된다. 먼저 평면은 홑집 계열로 양측에 방, 가운데에 대청으로 분화된 칸살이 즉 중당협실형(中堂挾室型)을 나타낸다. 그리고 전면에 난간을 달린 툇마루를 내밀었고, 툇마루 부분은 아래에 누하주(樓下柱)를 두어 누마루의

표 3. 연구대상 주요 누정 평면도

이름	평면	사진	이름	평면	사진
청원루			집청정		
이휴정			해은정		
양정재			재천정		
송애정사			옥오정		
관서정			거경재		
백련정			작천정 (추정)		

형식을 갖게 하였다. 또한 재실의 기능을 가진 정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대청 후면에 달린 관문이 주출입구가 되도록 하고 정면의 경관을 극적으로 바라보게 한 후면부 진입형이다. 이처럼 정자의 어칸이 넓은 것은 구조적 목적도 있지만 건물 전체 균형이 안정되어 보이도록 하여 미적(美的)인 안정감을 표현하려는 의도도 있다.

그리고 현재의 이휴정은 울산객사의 중루를 옮겨다

가 그 형식만 울산지역의 정자의 일반적인 형식인 중당 협실형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1칸의 크기나 부재의 크기가 여타 정자에 비하여 월등히 큰 특성이 있다. 한편 정면 2칸, 측면 2칸의 폐쇄형인 입암정은 초창이후 지속적으로 변형되어 정자의 기능보다는 수장고의 기능으로 변모하였다. 이휴정을 제외한 나머지 정자들의 정면 어칸 크기의 평균치는 약 2.54m인데, 조선 세조 때의 영조척이었던 1자[尺] 31.22

표 4. 울산지역 누정의 평면구성 (1칸 크기는 기둥 중심간 거리, 단위 : m)

정자 이름	칸수	전체길이		주칸길이				기둥 직경	평면비례			
				정면		측면			정면길이/ 측면길이	정면어칸/ 정면퇴칸	측면퇴칸/ 정면퇴칸	측면퇴칸/ 정면어칸
		정면	측면	어칸	협칸	퇴칸	어칸					
청원루	5×2	11.13	4.24	2.43	2.2	2.1	-	2.1	0.36	2.6	1.02	1.0
이휴정	3×3	12.5	7.52	4.37	-	2.3	2.8	0.53	1.68	1.90	1.00	0.52
집청정	3×1.5	7.68	3.93	2.56	-	2.56	2.72	0.26	1.95	1.00	0.47	0.47
관서정	4×1.5	9.74	3.94	2.45	-	2.42	2.74	0.27	2.47	1.01	0.50	0.49
백련정	4×1.5	9.60	3.74	2.40	-	2.40	2.42	上 0.28 下 0.50	2.57	1.00	0.55	0.55
재천정	3×1.5	7.95	4.19	2.75	-	2.60	2.97	0.26	1.90	1.06	0.47	0.44

표 5. 울산지역 누정의 입면구성 (단위 : m)

정자 이름	칸수	전체길이		주칸길이				기둥 직경	평면비례			
				정면		측면			정면길이/ 측면길이	정면어칸/ 정면퇴칸	측면퇴칸/ 정면퇴칸	측면퇴칸/ 정면어칸
		정면	측면	어칸	협칸	퇴칸	어칸					
청원루	5×2	11.13	4.24	2.43	2.2	2.1	-	2.1	0.36	2.6	1.02	1.0
이휴정	3×3	12.5	7.52	4.37	-	2.3	2.8	0.53	1.68	1.90	1.00	0.52
집청정	3×1.5	7.68	3.93	2.56	-	2.56	2.72	0.26	1.95	1.00	0.47	0.47
관서정	4×1.5	9.74	3.94	2.45	-	2.42	2.74	0.27	2.47	1.01	0.50	0.49
백련정	4×1.5	9.60	3.74	2.40	-	2.40	2.42	上 0.28 下 0.50	2.57	1.00	0.55	0.55
재천정	3×1.5	7.95	4.19	2.75	-	2.60	2.97	0.26	1.90	1.06	0.47	0.44

cm로 나누어 보면, 약 8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면 퇴칸의 평균크기도 2.50으로 8자의 범주에 든다. 이처럼 어칸과 협칸의 크기가 같거나 거의 차이 나지 않는 것은 시각적으로 확연히 드러나지 않으면서 어칸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기법이 구사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측면은 전체 길이의 평균치가 약 4.01m로 약 13자[尺]에 해당하고 이는 측면 1.5칸 전부를 합한 크기이다. 통상적으로 정자는 방을 두지 않는 경우 측면을 2칸으로 두지만, 방을 두는 경우는 1.5칸으로 하여 1칸은 방으로 나머지 0.5칸은 뒷마루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2. 입면구성

누정을 포함한 한국 전통건축에서 입면의 구성은 크게 상·중·하분으로 구분된다. 상분(上分)은 지붕의 높이에 해당하고, 중분(中分)은 기둥이며, 하분(下分)은 기단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울산지역에 현존하는 여러 정자들을 볼 때 그러나 측면의 전체길이는 방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큰 차이는 없고, 다만 방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약 1자[尺]가 커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리고

기둥 굵기는 백련정의 루하주가 Ø50cm 내외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Ø26~28cm이며, 그 굵기의 기준치는 약 Ø26cm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평면구성은 정면 3칸, 측면 1.5칸으로 가운데에 마루를 두고 그 양쪽 곁에 방을 둔 중당협실형(中堂挾室形)이 보편적이다.

상분은 지붕의 형식과 직결되어 있는데, 울산의 누정은 팔작지붕이 맞배지붕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하분은 기단부로 지붕과 마찬가지로 입면의 느낌을 결정짓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울산지역의 누정들 모두는 정자 바닥의 2/3 정도를 토석혼축(土石混築) 기단으로 처리하고, 전면으로 1/3 정도의 뒷마루는 루(樓)형식으로 하여 마치 건물이 대지로부터 돌출된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울산지역 누정은 조사 결과 건물의 전체높이는 대체로 5.79~6.51m 범위를 나타내며 평균 약 6.08m 정도로 비슷하다.

또한 건물의 하부가 경사지에 적응한 기단이 조성되는 정자의 특성상 누하주(樓下柱, 하층)가 누상주(樓上柱, 상층)보다 약간 낮은 편이며, 누하주의 높이는 일정하다기 보다는 지형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

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측 결과 이번 조사대상인 누정은 지붕높이에 비해 기둥높이(주심도리 아래까지)가 1.6배 정도 높다.

이는 울산지역의 누정의 상당수가 강변에 위치하여 있고, 그 곳의 지형이 대지와 강변 사이에 경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 사이 공간에 위치하는 누정의 경우 누하주를 적극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누하주는 지형에 따라 다양한 높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다른 지역, 특히 울산과 인접한 경주지역과 비교해 볼 때, 누하주가 긴 편에 속하여 경사지에 적극 동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울산 지역 누정의 입면특성으로 구현됨을 알 수 있다.

3. 세부구조

우리나라의 전통 목조건축은 다양한 목재 부재가 결구(結構)되어 하나의 건물이 만들어지는 가구식(架構式) 구조로 되어 있다. 목재 재료가 갖는 특성상 가공이나 조립이 용이하여 다양한 형태로 조영이 가능하다.

현존하는 울산지역 누정의 세부구조를 분석하면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이휴정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초익공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집청정과 관서정은 초익공처럼 정교하게 다듬어 지지 않은 민도리의 보아지에 그치고는 있지만, 구조 방식이 주두(柱頭) 아래에 보아지를 댄 초익공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초익공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한 장의 엽서로만 전하고 있는 초기

(1902년 초창) 작천정의 경우 사진을 확대하여 보면, 희미하게나마 초익공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울산지역 정자들의 일반적인 공포형식은 초익공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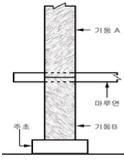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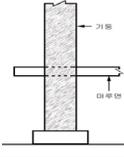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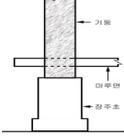
울산지역 정자건축에 사용된 초석은 정자의 전면과 그 외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자의 전면은 얼굴과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둥근 기둥을 사용하고 장주초를 두어 의장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관서정의 경우 원래는 낮은 사각다듬주초를 두었으나 1950년대에 중건을 거치면서 그 위에 다시 모서리를 다듬은 사각장주초를 올렸다. 작천정은 초창부터 장주초를 사용하였는데 작괘천의 암반 위로 물이 넘칠 경우 나무보다는 돌이 부식에 잘 견디고, 강도도 높기 때문이다. 전면 기둥열의 주초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초는 대부분 덩병주초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면 뿔마루[樓]의 기둥은 뿔마루면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를 서로 나누어 별도의 부재로 한 것(A형)과 뿔마루 아래[樓下] 지면(地面)과 뿔마루까지의 높이에 따라 하나의 기둥으로 처리한 것(B형, C형)으로 나뉜다. 또한 아래쪽의 기둥에 장주초를 두지 않은 것(B형)과 둔 것(C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표 6. 울산지역 누정의 세부구조

정자 이름	주초	기둥	공포	가구					치마		지붕			난간
				가구	총량	대공	화반	뜯창방	종류	내밀기	종류	합각	막새	
청원루	덩병주초	원주	이익공	5량	○	파련대공	파련원형	○	겹쳐마	1.90	팔작	회	×	계자
이휴정	덩병주초	원주	이익공	5량	○	파련대공	파련원형	×	겹쳐마	1.67	팔작	널	○	계자
집청정	덩병주초 원형주초	원주	민도리 보아지	3량	○	제형판 대공	×	×	출쳐마	1.53	팔작	적벽돌	×	계자
관서정	장주초	원주	초익공	3량	○	제형판 대공	×	○	겹쳐마	1.65	팔작	와적	○	계자
백련정	덩병주초	원주	민도리 보아지	3량	○	원형판 대공	×	×	출쳐마	1.55	팔작	와적	○	계자
채천정	덩병주초	원주	초익공	3량	·	원형판 대공	×	×	출쳐마	1.57	맞배	·	×	계자
작천정	장주초	원주	초익공	?	?	?	?	?	출쳐마	?	팔작	와적	×	계자

표 7. 울산지역 누정의 전면 기둥양식

구분	개념	특성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루면(樓)을 기준으로 루상주와 루하주를 따로 둔 형식 - 지면에서부터 루마루에 이르는 높이가 높은 경우 적용 - 루하주를 강조할 경우 적용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상주와 루하주의 구분 없이 하나의 부재(通才)로 마루면을 통과하는 형식 - 지면에서부터 루마루에 이르는 높이가 낮은 경우 적용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상주와 루하주의 구분 없이 하나의 부재(通才)로 마루면을 통과하는 형식 - 지면에서부터 루마루에 이르는 높이가 높지만, 의장성을 위하여 장주초를 두면 루하주는 짧아짐. 이럴 경우 기둥을 하나의 부재로 처리

조사대상 정자의 경우, 루하(樓下)의 기둥 높이 중 재천정이 가장 낮아 0.9m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1.6m 이상으로 높다. 관서정의 전면 기둥은 하나의 부재로 하였으며 그 외의 정자들은 모두 둘로 나누어 두었다. 즉 지면과 마루면의 높이차가 작을 경우에는 하나의 부재로 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화반(花盤)은 삼량가로 창방과 도리 사이의 간격이 좁아 화반은 별도로 두지 않았고, 간혹 소로를 수장한 것은 찾아 볼 수 있다. 대공(臺工)의 경우 조선 후기 건물에 대부분인 울산의 누정은 주로 판대공이며, 그 모양은 원형과 제형(梯形, 사다리꼴)이 있다. 재천정과 백련정은 원형판대공이며, 관서정과 집천정은 제형판대공이다. 그리고 이휴정은 파련대공으로 공공건물이었던 이력을 잘 보여준다. 처마는 울산의 누정은 겹처마와 홑처마가 동일한 비율로 사용되었으며 지붕은 재천정을 제외하고 모두 팔작지붕을 채용하였다.

천장(天障)을 만들지 않아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되어 보이는 천장을 연등천장이라 하는데, 이번에 조사된 울산의 누정의 마루부분은 모두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었고, 방의 경우는 수재정과 이휴정은 우물반자를 두었고, 나머지는 모두 연등천장으로 하였다.

조사된 울산의 누정은 모두 계자난간을 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단청은 공공성을 띠고 있었던 청원루와 이휴정을 제외하고 모두 단청을 올리지 않은 백골집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조선시대 울산지역 누정의 평면구성과 규모 및 형태, 입면구성, 세부구조 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울산지역 정자건축의 전형적인 평면형식은 홑집계열로 양측에 방, 가운데에 대청으로 분화된 칸살이 즉 중당협실형(中堂挾室型)이며 전면에 난간을 달린 툇마루를 내밀었고, 툇마루 부분은 아래에 누하주(樓下柱)를 두어 누마루의 형식을 갖게 하였다. 또한 대부분 대청 후면에 달린 판문이 주출입구가 되게 하여 정면의 경관을 극적으로 조망하게 한 후면부 진입형이다.

이는 경주지역의 누정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형식으로 울산이 고대로부터 경주의 문화권역에 속하여 있고, 상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2) 입면은 한국 전통건축에서의 입면 구성과 같이 크게 상·중·하분으로 구분하였는데 상분(上分)은 지붕의 높이에 해당하고, 중분(中分)은 기둥이며, 하분(下分)은 기단에 해당한다. 특히 하분은 정자 바닥의 2/3 정도를 토석혼축(土石混築) 기단으로 처리하고, 전면으로 1/3 정도의 툇마루는 루(樓)형식으로 하여 마치 건물이 대지로부터 튀어 나온듯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구성은 경주지역의 누정과 유사하지만, 보다 강변에 가까이 하려는 울산지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나며, 울산 정자의 특성으로 부각하여 콘텐츠화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세부구조는 이휴정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초익공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초석은 전면은 둥근 기둥을 사용하고 장주초를 두어 의장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화반(花盤)은 삼량가로 창방과 도리 사이의 간격이 좁아 별도로 두지 않았고, 대공(臺工)은 주로 판대공이며 처마는 울산의 정자는 겹처마와 홑처마가 동일한 비율로 사용되었고 지붕은 재천정을 제외하고 모두 팔작지붕을 채용하였다.

천장(天障)은 마루부분의 경우 모두 연등천장으로 하였고 단청은 공공성을 띠고 있었던 청원루와 이휴정을 제외하고 모두 단청을 올리지 않은 백골집이다.

이와 같이 울산 누정의 세부구조는 화려한 장식을 두지 않은 담박함이 있는데, 이 또한 울산지역 정자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 그 구조를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모델링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울산지역 누정의 기초자료 확보에 그 목적을 두었고, 평면과 입면의 특성 분석에 머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입지와 배치 등 세부적인 사항도 조사 연구하여 울산지역 누정의 콘텐츠 개발에 적극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設文解字(후한시대 편찬), 營造法式(1103년 간행), 東國李相國集(1241년 간행), 鶴城誌(1749년 편찬), 蔚山邑誌(1934년 간행), 興麗勝覽(1937년 간행)

[2] 박언근, 한국의 정자, 대원사, 1998.

[3] 박언근, 한국의 누, 대원사, 1999.

[4] 김상협, 최경란, "조선시대 수변정자건축의 자연 추주기법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259호, 2010

[5] 이유수, 내고장의 전통, 울산시, 1982.

[6] 울산문화원, 울산 문화재 총람, 울산문화원, 1994.

[7] 울산향토사연구회, 향토사보 5집, 1994.

[8]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울산광역시사, 울산광역시, 2002.

[9] 울주군지편찬위원회, 울주군지, 울주군, 2002.

[10] 울산대학교 도시건축연구소, 울산의 건축문화재 제4집-주택건축, 울산광역시, 2002.

[11] 울산대학교 도시건축연구소, 이휴정, 학성이씨월진문회, 2003.

[12] 울산대학교 도시건축연구소, 석계서원, 울산광역시, 2008.

저 자 소 개

이 재 현(Jae-Hyun Lee)

정회원



- 1990년 2월 : 동아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응용미술학사)
 - 1994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응용미술학과(응용미술학석사)
 - 1999년 3월 ~ 현재 : 울산과학기술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교수
- <관심분야> : 아이덴티티디자인, 경관디자인

이 창 업(Chang-Eob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울산대학교 건축학과(공학사)
 - 2005년 2월 : 울산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공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울산과학기술 공간디자인학부 겸임교수
- <관심분야> : 건축, 실내건축, 문화콘텐츠개발